

법헌 스님의
만다라&수행

지장원(地藏院)

지장원은 지장보살을 주존으로 하여, 9존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화부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장은 대지(大地)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첫째, 모든 것의 기반이 되어 결코 파괴되지 않으며 광대하고 견고한 대지를 말하고 둘째, 생명을 무한히 탄생시키고 길러서 풍요롭게 하는 의미가 있으며 셋째, 금은, 보석, 광석을 무진장으로 함유하고 있음을 대지라고 한다.

이 대지는 우리에게 무한의 풍요를 주는 것과 같이 지장보살의 견고한 보리심으로 중생의 고뇌를 없애고 열반의 즐거움을 증득하게 한다.

지장보살을 육도(六道)에 배치하여 중생을 제도 교화 하는데 하는데 다음과 같다.

단타지장(檀陀地藏)은 지옥(地獄)중생을 제도하고.
보주지장(寶珠地藏)은 아귀(餓鬼)중생을 제도하고.
보인지장(寶印地藏)은 축생(畜生)중생을 제도하고.
지지지장(持地地藏)은 수라(修羅)중생을 제도하고.
제개장((除蓋障)은 인간(人間)중생을 제도하고.
일광지장(日光地藏)은 천상(天上)중생을 제도한다.

〈동방불교대학 실담학 교수〉



보리수아래의
부처님 품안에서



⑭ 뇌병변장애인 성희철 씨

‘장애’ 보다 더 큰 장애, 편견

절마다 백중기도를 입재하여 기도 중이다. 글을 쓰면서 백중의 의미 속에 장애가 있는 자식이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과 장애인에 대한 바른 인식의 시작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

작은 체구의 경상도 사투리를 부드럽게 쓰는 성희철 씨는 부산에서 꽤 유명한 뇌병변장애인이다. 눈웃음 하나만으로도 억센 억양의 부산 사투리를 부드럽게 만드는 사람이다. 전동휠체어를 타고 있지만 장애인식개선 강사, 시인, 생명의 전화 상담봉사원, 시낭송모임 활동, SNS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2015년부터 장애인식개선 강사로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한 현장이면 어느 곳이든 찾아가 교육을 한다. 강사가 되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을 때 자신이 생각해도 실습으로 한 강의를 참 못했었는데 큰 질책을 하지 않고 차근차근 가르침을 준 지도 선생님들에게 큰 감동을 받았단다. 그분들은 희철 씨 스스로 포기하기 전에는 절대로 가르침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믿음을 갖게 되니 행복도 하였다고 한다. 그 믿음과 행복감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여 장애인식개선 강사가 되었고 열심히 활동하게 되었다.

희철 씨는 장애인식개선 교육 현장에서 일화를 들려주었다. 교육을 나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장애인을 만나면 무슨 생각이 드는지 물었다고 한다. 무섭다고 답을 한 아이들이 다수였다고 한다.

아이들의 답을 듣는 순간 부모님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자신을 키우면서 어떤 아픔을 느끼고 계셨는지, 남들과 다른 모습의 자식을 보았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들이 물밀듯 밀려왔더랬다. 중증의 장애자식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잘 자라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먼저 가지 않을까 하는 숱한 고민을 안고 노심초사 키워주신 부모님 마음을 헤아렸다는 것이다. 자라면서 부모님을 원망한 시간도 잠시 있었으나, 특수학교를 다니던 어린시절 매일 아침 스쿨버스를 태우며 배웅하던 어머니 모습은 잊히지 않고 인식개선 강사를 하면서 부모님을 더욱 이해하게 되었다고 한다.

희철 씨는 지난 4월에 생애 첫 시집 〈수박 속같이 붉은〉을 냈다. 보리수아래 감성시집 여섯 번째 시집으로 독자들의 좋은 반응이 아직까지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시집에 수록된 시들은 희철 씨의 삶에 대한 감사와 희망, 미래에 대한 꿈을 적은 것들이며, 가족 안에서 늘 자랑스럽고 남들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고 가족이 되고 싶은 마음을 담고 있다.

희철 씨는 시 ‘나의 어머니’ 에서 “따뜻한 가슴으로 안아 주시다가도/ 아픈 물리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도리질을 하면 불호령을 내리셨던/나의 어머니/ 조금만 더 조금만 더/노력하면 내 친구 녀석과/똑같이 걸을 수 있다고/ 아무리 자신 없다고/목소릴 높여도/애써 고개를 돌리시며/두 귀를 막으시던 /나의 어머니 / -중략-/ 나의 어머니에게 /나는/숨겨놓고 아끼는 화분이다. ”라고 했다.

그리고 시 ‘계단’ 에서 보면 “나의 어린 시절/땅바닥을 기어 다닐 때/나의 부모님은 꼭 계단을 걸어 내려가는/



부산뇌병변복지관에서 활동하는 성희철씨

사람이 되라는 다짐을 받았다./-중략-/ 다리 수술 후/ 나 홀로 계단을 내려오는 힘을 잃었을 때/ 어머니는 뒤에서 바지 끝만/ 잡아 주는데도 난 신기하게/ 내려오는 것이었다./ 외출을 할 때/ 난 늘 어머니를 부른다/ -중략-/날 계단 내려보내는 일은 /나에겐 자유에 대한 첫 관문/ 어머니에게는 아들을 위한 노동”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시는 자신의 이층집에서 계단 내려오는 모습을 묘사한 시다. 희철 씨의 시에는 장애 자식을 둔 부모님의 마음, 장애가 있는 희철 씨의 마음, 장애를 초연히 받아들이는 어머니와 희철 씨의 두 마음이 합쳐져서 그린 풍경 등 많은 이야기가 담겨있다. 가만히 읽다 보면 눈가가 젖어온다.

희철 씨는 사람들에게 장애에 대해서 단정을 짓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다. 시도해보지도 않았고 기회를 얻어보지도 못했는데 못하는 것으로 단정을 지어버릴 때 희철 씨에게 큰 상처가 되었다. 장애 자체보다 더 큰 장애가 되었고 “너는 못 하잖아” 하면 맥이 풀리고 존재 이유까지 고민하게 되었다. 특히 아는 사람들이 “너의 한계는 여기까지야”라고 선을 그을 때 자신이 꿈꾸며 되고 싶은 것에 대한 의지가 비상하려다 꺽인 새의 날개가 되던 날이 있었다.

어찌 희철 씨만의 경험이었겠는가. 장애인이라면 다 겪었을 일이기도 하다.

희철 씨는 장애인들도 “이래서 안 돼 저래서 못해”라는 단정적인 말을 듣거든 그것은 “바른 생각이 아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의사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희철 씨에게 백중은 부모님을 위한 시를 직접 낭송하여 공양 올리는 날일 것이다. 위트와 재치를 지닌 그가 재미있게 이끌어가는 장애인식개선 강의를 스님과 불자님들이 들으실 기회가 곧 오리라 기대해 본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틀 안의 강의가 아니라 즐겁게 들으면서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치며 장애인을 이해하게 되는 희철 씨의 강의를 듣고 싶은 분들이 꼭 있지 않을까.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